

여성정책동향

주혜진 /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양성 평등한 대전을 위한 성별영향 평가의 정책적 환류 방안

최근 각 지자체는 일상적인 삶에서만이 아니라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정체성이 영향을 미쳐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과 사업 수행결과에 수혜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여 성별에 따른 조건과 요구를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대전시는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양성 평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사전에 검토·분석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성별영향평가를 실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획 중이거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정책의 기획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정책 평가 단계로 나누어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입안에 다시 반영하는 성별영향평

가의 환류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결과를 반영한 환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전시 노령 인구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 노령 인구 각각의 취업 상태와 수요를 파악하였고, 노인복지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여성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를 구체화 하였다.

대전시 대덕구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한 정책적 환류의 예로 주목할 만하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의 참여자도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정책 자문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을 55%까지 끌어 올렸다. 결혼이민자 가정인 경우 남편과 아내의 정보 접근 방법의 차이를 인식하여, 남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대주명의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낮

선 이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결혼이주가정의 여성의 사회 적응력은 남편 및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라는데 착안하여 기존의 여성 중심의 교육뿐 아니라, <단학체조> <발마사지> <대덕투어> 등을 기획, 실행하여 자연스럽게 남편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구성원 간 갈등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우수 환류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대전시의 성별 및 계층 간 차이를 인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서비스 제공 방안과,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사업 공모 시에 여성 관련성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과 평가 지표의 개발 사업 등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열린 인사 행정 관리를 위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모 사업 선정에 활용하는 방안, 민간 공모 실행과 선정 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 집행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오랫동안 성별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 수행의 상징적 사례로 빈번하게 등장해왔던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전시는 성별 화장실 이용 횟수 및 시간을 조사하고,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를 최대 1:1.5 비율로 개선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고 있다.